

# 11월의 닭 관리

## 임 병 규

### 산 란 계

#### 1) 계사의 보온과 환기

산란계에 알맞는 기온은 15°C 내외이다. 그러나 이 달에는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서 서울 지방의 경우 평균 최저 기온이 1.4°C이고 -10.7°C까지 내려간 예가 있다.

표1: 11월의 기온(°C) 및 상대습도(%)

지역	평균 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최저기온('66)	최대교차('66)	상대 습도
춘천	4.7	10.9	-1.7	-14.4	16.5	—
강릉	8.8	14.0	4.4	-7.8	17.0	60
서울	6.3	11.7	1.3	-10.7	15.7	68
수원	5.8	11.1	0.4	-11.2	17.3	—
대구	7.8	13.9	2.5	-7.2	18.1	67
전주	7.8	13.7	2.7	-7.0	17.2	75
광주	8.2	14.5	2.9	-6.0	17.5	75
부산	11.1	16.0	7.4	-5.4	16.9	59
제주	12.1	15.9	8.6	0.8	9.9	68

그렇기 때문에 산란계사는 그 지역 크기 형태에 따라 계사 내의 온도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지방 계사인 경우는 계사의 북쪽 창문은 짐차로 폐쇄시키고, 남쪽 창문만 개폐시킬 수 있게 하면 좋다. 이 달에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여 기온의 일교차가 18°C 이상일 때도 있다. 계사내 온도의 일교차가 15°C 이상 되면 호흡기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쪽의 창문으로 잘 조절한다.

그런데 계사내의 보온에만 치중한 나머지 창문을 너무 폐쇄시켜 놓으면 계사내는 호흡이나 계분 및 급수기 등에서 증발한 수분으로 말미암아 습도가 높아지고 탄산가스나 암모니아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닭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 환기를 적당히 시켜서 계사내에서 생긴 습하고 탁한 공기를 몰아내고 건조하고 신선한 공기를 고루 넣어 주어야 한다. 대체로 환기는 기온이 높은 낮에 많이 시키고 밤에는 창문을 닫아서 실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표2: 성계 1수당 최저환기량

계사 내 온도(°C)	최저 환기량(m <sup>3</sup> /분)
-10	0.007
-2	0.020
4	0.054
13	0.128

환기 시킬 때는 계사 내에 고르게 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풍속(초속) 1m마다 체감온도는 1°C씩 감소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사내의 온도가 5°C 내외일 때 풍속이 초속 3m이면 닭이 직접 느끼는 온도는 3°C나 낮아져서 무풍시의 2°C 때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2) 점등: 일조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11월 초순에는 10시간 30분, 하순에는 10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표3: 11월의 일출입 시각 및 일조시간(시·분)

지역	7일			17일			27일		
	일출	일입	일조시간	일출	일입	일조시간	일출	일입	일조시간
제주	6.57	5.37	10.40	7.07	5.30	10.23	7.16	5.27	10.11
목포	7.00	5.36	10.36	7.10	5.28	10.18	7.19	5.25	10.06
부산	6.50	5.25	10.35	7.00	5.17	10.17	7.09	5.13	10.04
광주	6.59	5.33	10.34	7.09	5.26	10.17	7.18	5.22	10.04
전주	6.59	5.31	10.32	7.09	5.23	10.14	7.19	5.19	10.00
대구	6.53	5.25	10.32	7.03	5.17	10.14	7.13	5.13	10.00
인천	7.04	5.30	10.26	7.14	5.22	10.08	7.25	5.17	9.52
강릉	6.55	5.21	10.26	7.06	5.12	10.06	7.17	5.07	9.50
서울	7.03	5.29	10.26	7.14	5.20	10.07	7.24	5.15	9.52

※ 일출시작은 오전 일입시작은 오후 시작임  
산란계의 최저 점등시간인 14시간에 비하면 약 4시간이나 부족되는 셈이다. 산란계에는 점등을 해서 사료섭취 시간을 늘이는 동시에 성선

을 자극(광선→시신경자극→뇌하수체 자극→난소 자극→산란)시켜 정상적인 산란율을 유지하는데 힘쓴다. 이미 점등을 실시하고 있는 산란계에는 계획대로 정확한 점등을 해줄 것이며, 아직 점등을 하지 않은 산란계에는 최소한 14시간이 되도록 점등을 시켜준다. 점등을 시작할 때는 필요한 시간을 한번에 늘여주지 말고 1주일 간격으로 15~30분간씩 늘여서 급격한 환경변화를 피해야 한다. 점등하는 기간에는 정확한 점등시간 정확한 밝기 균등한 조명 등 수시로 세밀한 점검을 하여 미비된 점은 발견 즉시 시정하여 주지 않으면 점등효과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3) 관찰: 관리자는 잠시라도 닭의 관찰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닭의 관찰을 성의있고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닭의 건강유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닭의 활력, 식욕, 계분의 상태 등은 닭이 활동하는 주간에 그리고 호흡은 야간에 들을수 있도록 한다. 특히 호흡기 병의 발생 위험성이 짙기 때문에 항상 호흡상태를 세밀히 관찰 하도록 한다.

### 부로일러

부로일러 경영의 합리화는 무엇보다도 높은 육성율과 사료효율의 향상에 있을 것이다. 사료효율은 무엇보다도 육성사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표4 육성사 내 온도에 따른 체중과 사료요구율(10주)

온도 (°C)	체중 (kg)	사료요구율
5	1.96	3.05
10	2.07	2.83
15	2.12	2.60
20	2.15	2.42
25	2.05	2.26

특히 육성사내 열의 손실의 60~70%는 천정 쪽으로 일어나므로 반자가 없으면 반자를 하고 톱밥이나, 왕겨같은 단열재료를 넣는다. 입체 육추기를 사용하는 계사에서는 육추기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특히 처음 1주일간은 실내의 상대습도를 65~70%로 유지해주시지 않으면 우모의 발생이 불량하고 발육도 늦어진다. 대기온이 낮아지면 대기 중에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잊고 육추사내의 보온에만 치중한 나머지 습도의 부족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 각 온도 하에서의 공기중에 함유할 수있는 수분량은 매 m<sup>3</sup>당 0°C때에 3.77g, 10°C일 때에 7.63g 20°C일 때에 14.7g, 30°C일 때에 2.72g이 된다. 가령, 기온이 0°C 일때 수증기가 매 m<sup>3</sup>당 3.77g로 포화상태여서 상대습도가 100%이지만, 이 수분량은 10°C일 때의 약 50% 20°C때의 26%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육추실내에는 수분을 증발시킬수 있는 설비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축 창 간

미국테무라  
농장기술제휴

## 수 색 종 금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동 291 (Tel 32-4554)

대 표 한 종 석